솔뫼 (제 2-70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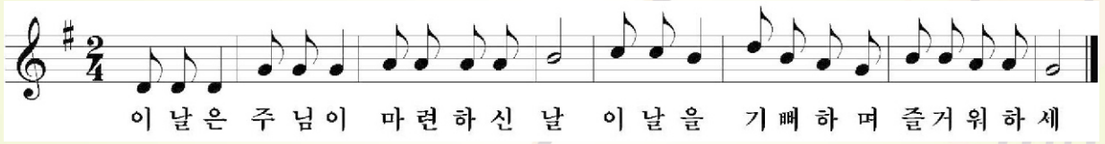
천주교 브라질 성 김대건 한인 성당
Paróquia Pessoal Coreana São Kim Degun
Rua Nair de Teffé 147, Bom Retiro, 01128-040, São Paulo, SP, Brasil
www.pskd.org.br
paroquia.cb@gmail.com
Tel.: 55-11-2128-0401/2/5
Fax.:55-11-2128-0404

2019년 4월 21일 부활대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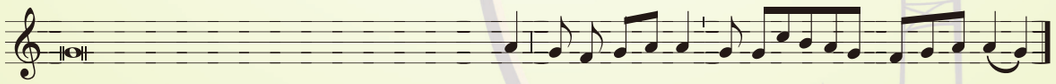
현재 우리 성당 교우는 1,170세대 3,387명입니다.
지난 주 미사 참석자 수는 867명 입니다.

성가번호 ♬입당 130 ♬예물준비 133, 131 ♬영성체 138, 135 ♬파견 136

제1독서 사도 10,34ㄱ.37ㄴ-43 **제2독서** 콜로 3,1-4 **복 음** 요한 20,1-9

화답송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파 견

✠ 미사가끝났으니가서복음을전합시다 알렐루 - 야 알렐- - - - 루 - - 야
◎ 하느님감사합니 다 알렐루 - 야 알렐- - - - 루 - - 야

부활 삼종기도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요일	주일(21일)	월(22일)	화(23일)	수(24일)	목(25일)	금(26일)	토(27일)
미사 시간	09:00 10:30	07:00	19:00	07:00 19:00	07:00 19:00	07:00 19:00	07:00 19:00

◈주임신부:조성광(바오로) 2128-0414 ◈보좌신부:김제동(사도요한) 2128-0418
◈분원장수녀:황프란치스2128-0427(수녀원) ◈유치원:2128-0446 ◈대건한글학교:2128-0422
◈위령봉사회:99956-0215, 97353-5544, 99803-8838 ◈복지위원회:99679-9403

본당과 전례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주님 부활의 생명과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본당에서 준비한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점심 봉사를 해주신 1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부활 삼종 기도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부활 삼종 기도를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 예비신자 영세

세례성사를 받고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태어난 12명의 새 영세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아 영세 : 4월 27일(토) 15시 소성당

유아영세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부활 특강

일시 : 4월 28일(주일) 12시 30분 극장
주제 : '성서의 영성'
강사 : 오남한 루카 신부님(대전 교구)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 성서 신학 전공)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 집니다' (로마10,7)

♣ 공동체 설립 제54주년 본당의 날 기념 미사

일시 : 5월 5일(주일) 10시 봉헤찌로 야구장
아침 7시 미사만 본당에서 있습니다.

버스 운행 시간표(봉헤찌로는 2번 운행합니다)

아클리마썽	브라스		봉헤찌로	
Itau 은행	한국공원	빠리성당	Prates	Prates
08:05	08:20	08:20	08:30	09:00

☞ **야구장과 성당간 버스 운행 시간표(본당 버스)**

08:30 ~ 10:00	12:00	14:00	16:00

☞ **주의사항 안내**

-행사장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성당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시고 성당 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과 야구장 간 수시로 버스를 운행합니다.)
-행사장 밖에 주차하신 분은 차량 파손 및 도난에 주의하시고 차량 내부에 귀중품을 두시면 위험합니다.

♣ 성모의 밤 : 5월 14일(화) 저녁 7시 미사

성모의 밤에 성모님 제단에 꽃을 봉헌하실 분이나 단체는 사무실에 헌화대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금으로 5월 한달동안 아름다운 꽃을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오늘의 모임

▶**소공동체장 회의** : 9시 11호실
▶**대건회** : 10시 13호실
▶**요아킴회** : 교중 미사 후12호실
▶**향심기도회** : 12시 30분 11호실
▶**꾸리아 월례회** : 12시 30분
하늘의 문 꾸리아 13호실
천상 은총의 어머니 3층 대회의실
▶**성소후원회** : 12시 30분 14호실
▶**남성 단체 친목 운동회** : 13시 운동장
단체 : 요셉회, 아버지회, 대건회, 청년회, 교사회(주일학교, 고등부)
▶**오늘 점심 봉사** : 1공동체
다음 점심 봉사 : 성인 포어반

단체와 행사

♠7공동체 모임

일시 : 4월 22일(월) 18시 30분
장소 : 성당 연회장

♠고등부 소풍

일시 : 4월 28일(주일)
장소 : Vale dos Cebrantes - Jundiaí

♠성경 공부(사도행전)

일시 : 4월 30일(화) 10시 / 저녁 미사 후
강사 : 이 마리 노아 수녀님

성당 묘지 관리비 납부 요청

겟세마니 성당 묘지관리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관리비 : R$430,00

14차 M.E 주말 신청

일시 : 5월 31일(금)~6월 2일(주일)
대상 : 결혼한지 3년 이상 된 부부
회비 : 부부당 R$700(2박 3일 숙박비 포함)
♠포어권을 위한 동시 통역이 있습니다.

오늘의 전례

제1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0,34ㄱ.37ㄴ-43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4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의 향기

용서는 회개를 불러옵니다.

O perdão traz o arrependimento.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마태 18, 22)

남아프리카 부족 중의 하나인 바벰바족 사회에는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벰바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학자들은 이 부족을 연구하여 마침내 놀라운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오면 그를 광장 한복판에 세웁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여들어 그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시작합니다. 비난이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닌 그가 과거에 했던 미담, 감사, 선행, 장점의 말들을 한마디씩 쏟아내는 것입니다. "넌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우리 집 지붕을 고쳐줬잖아 고마워!" 그렇게 칭찬의 말들을 쏟아내다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흐느껴 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명씩 다가와 안아주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용서해줍니다. 그렇게 칭찬이 끝나고 나면 그가 새사람이 된 것을 인정하는 축제를 벌이고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사랑은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바벰바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시선은 생명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명예를 손상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게 만들고,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고, 나의 선한 의지를 이용하는 사람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능력으로 용서와 자비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도 안에서 만나고, 삶 안에서 용서의 힘을 드러내며 회개를 불러오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Jesus lhe disse: Não te digo que até sete; mas, até setenta vezes sete.” (Mt 18, 22)

Em uma das tribos da África do Sul, Babemba, há pouco crime na sociedade. Os pesquisadores acadêmicos que se interessaram pelo Babemba pesquisaram sobre o índice baixo de criminalidade e descobriram uma surpreendente razão. Nesta tribo, quando uma pessoa comete um crime, eles o colocam no meio de uma praça. E então começam um por um. Não para culpar ou atirar pedras nele, mas sim, derramar palavras de gratidão, bondade e todos os méritos que ele teve no passado. “Você é uma pessoa boa”, “Obrigado por ter consertado o telhado da minha casa no ano passado, época em que estava chovendo bastante”, e quando derramavam palavras de elogio, aquele que tinha cometido o crime começava a chorar. E então as pessoas se aproximavam e o abraçavam, consolando e o perdoando. Depois que os elogios terminavam, finalizavam com um festival como um reconhecimento por ele ter se tornado uma nova pessoa. O amor é poder para mudar e restaurar. O olhar sobre a pessoa que cometeu o crime em Babemba é o mesmo olhar que Jesus teve para salvar as nossas vidas. Há momentos em que encontramos pessoas que tornam a nossa vida difícil com suas ações incompreensíveis. É quase impossível tratar bem e de coração aberto aqueles que comprometem a nossa reputação, nos deixam com dificuldades econômicas, rompem a comunhão da nossa família e abusam da nossa boa vontade. Vamos, portanto, encontrar Jesus em nossas orações, Aquele que nos mostrou o perdão e a misericórdia pelo poder do amor. E que em nossa vida, essa força pelo perdão prevaleça e revele o arrependimento nos transformando em fieis com uma vida plenamente feliz. Amém.